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곤(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예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마르 1,29-39)



[제 1독서] 창세 9,8-15  
[화답송] 시편 25(24),4-5,7,8,6과 7,8,9(◎ 10 참조)  
◎ 주님, 당신의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십니다.◎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제 2독서] 1베드 3,18-22  
[복음 환호송] 마태 4,4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복음] 마르 1,12-15

성가	8시 미사	입당 115	봉헌 211	성체 159 182	파견 117
	11시 미사	입당 115	봉헌 211	성체 159 182	파견 117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사순 제 1주일(2월 22일)		사순 제 2주일(3월 1일)		사순 제 3주일(3월 8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일환 프란치스코	4구역:김순희 글라라	채성일 토마스	1구역:염명련 파트리샤	임승원 루카	2구역:조선덕 레지나
제 1 독서	채성일 토마스	4구역:정성준 요한	강신호 요한	1구역:최대원 다니엘	최환준 베네딕토	2구역:심태규 미카엘
제 2 독서	정애리 스텔라	4구역:정인경 가브리엘라	정애리 스텔라	1구역:이명란 아네스	최수영 베네딕다	2구역:심승화 헬레나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 정화의 시기이며 하느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기

시작은 작았지만, 일상 안에서 수차례 반복될수록 이로 인해 상처는 더욱 선명해지고,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대수롭지 않은 작은 것처럼 보이기에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이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며, 상처를 주었다는 말에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 이것이 큰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내 안에 원망으로 시작된 분노와 증오가 쌓여가고, 완고함으로 무장하여 더 이상의 상처를 거부하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갑니다.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평가와 비판을 하여야 하니 실로 평가와 비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저마다 상처를 받았다 합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서로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사실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으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을 시작하며 맞이하는 첫 주일의 말씀들이 더욱 마음을 울립니다.

무지개는 전혀 다른 일곱 가지의 색으로 조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무지개는 바라봄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화답송의 후렴구를 통해 우리는 자애와 진실이 바로 하느님의 길임을 노래합니다.

하느님은 왜 40일간 밤낮으로 비를 퍼부으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은 왜 광야에서 40일간 극심한 굶주림도 모자라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2독서의 말씀처럼 바른 양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렵고 힘든 용서함과 더불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용서를 청해야 하는지를 바라봅니다.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제는 자애로움으로 무장하고, 용

기 내어 조금은 진실해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순의 첫 주일을 보내며, 상처로 인한 나의 완고함 속의 평가와 비판으로 상처받았을 많은 이들에게 머리 숙여 용서와 화해를 청합니다.

하느님의 계약 : 화해와 용서의 무지개, 조화로움  
화답송 후렴구 :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2독서 : 세례는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복음 :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한정수 그레고리오신부  
인천교구 화수동 본당주임

생명의 말씀

우리도 광야에서 유혹을 겪지만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어 40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받도록 내버려두셨을까요? 또, 들짐승들로부터 온갖 위협을 받도록 하셨을까요?

끝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사실은 언뜻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사는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자주 광야에 홀로 버려져 있는 고독감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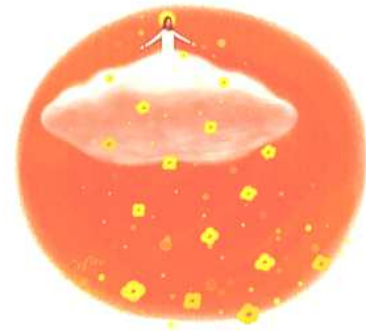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과 비참한 운명을 생각해보면 위로가 되고, 오히려 우리는 근본적인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시어 시종을 들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에로 일으키시면서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거의 매일 끊임없이 온갖 유혹을 겪으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아무 것도 없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주수욱 신부  
대방동 성당 주임

그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결핍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자동차와 상품들로 넘치는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화려한 재물을 미친 듯이 찾아다니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예수님은 들짐승들로 말미암아 많은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매일 40여 명이 자살하고, 매년 2천여 명이 일터에서 죽어가고, 지구촌에서는 무한 경쟁 시대에 신자유주의로 말미암은 극심한 빈부 격차 속에서 온갖 위협을 받는 가운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광야의 유혹 한가운데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종들었습니다. 우리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느님께서 여러 천사들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시종들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초대합니다.

노을이 지듯이 내 목숨 사라질 때  
내 혼이 부끄럼 없이  
당신에게 갈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생명과 사랑이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글 '수우족의 기도' 중에서 / 그림 구민정 엘리사벳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유혹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천사의 시종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지닌 하느님 아버지의 손길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 말씀의 향기

## 감사와 행복

슬럼프를 겪으면서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국제 대회 성적은 저조했고,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 성적이 나오지 않아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오로지 올림픽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미련 없이 떠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뎠고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열심히 훈련에 임하다 보니, 나중에는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가기 얼마 전에 하느님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 보셨죠? 놀라셨죠? 제가 이걸 다 이겨 낼 줄 모르셨죠? 세상에 놀랄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얼마 뒤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며칠간 적응 훈련을 했습니다. 시합이 다가오니 너무나 긴장되어 어머니께 전화 드렸습니다.

안타까워하시던 어머니께서 최근 겪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어머니는 성당에 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미사를 드리는데, 신부님이 입당하실 때 몸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려나 하고 있는데, 이상한 꿈도 꾸셨답니다. 큰 기와집이 산 밑에 보이고 산 뒤쪽으로 어마어마한 불이 나서 그쪽으로 향해 걸어가는데, 가는 길마다 어머니 옆쪽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며 따라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큰 기와집 앞에는 꽃들이 많이 있었고 뒤쪽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왜 모였는지 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여기 모두 최민호를 축하해주러 왔다는 말을 듣고, 순간 잠에서 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긴장됐던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되어 시합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미소가 입에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합장에 도착해서도 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합은 또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몸 상태를 주체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시합은 시작됐고 1회전부터 5회전까지 총 7분 40초, 믿을 수 없는 신기록이었습니다. 유도 시합은 한 판당 5분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한판승을 하면 바로 끝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포인트 하나도 뺏기지 않고 전 경기 한판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생각나 한없이 울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정말 수고했다.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우는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힘들었지만 힘든 것을 넘어서니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기도가 없었다면 이런 큰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최민호 바오로  
유도코치

성경산책

세상의 죄악을 쓸어버린 홍수

창세기 9장 8절-15절까지 읽어보세요. 제 1독서에서 하느님은 세상의 죄악을 쓸어버린 홍수가 끝난 뒤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노아하면 떠오르는 것은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사건’입니다. 당시의 세상은 죄악으로 넘쳐나 하느님은 홍수로 벌을 주려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당시의 의인(성경에서 의인이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 잘못을 저지르고 살지만, 하느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이었고 흠 없는 사람으로 하느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은 노아만 살려두고 싶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악한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려 계획 중이다. 너는 큰 배를 만들어 너희 가족과 동물들을 태워라.” 노아는 하느님 말씀대로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빈정거립니다. 얼마 후 대홍수로 세상은 온통 물에 잠겨 버리고 노아와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 6,9-22/창세 7-8장

홍수가 끝난 뒤 하느님은 노아와 계약을 맺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훨씬 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기 전 하느님은 노아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느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 다음의 성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 9,1-17

그런데 의인인 노아도 죄를 짓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노

아는 홍수가 끝나고 포도밭을 가꾸는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천막 안에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잠들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자기를 훔보았던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자는 노아와 세 아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 9,18-29

허영업 마티아 신부  
서울 대교구

♥ 괄호 속을 채워 보세요.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 )을 쌓고, 모든 정결한 ( )과 모든 정결한 ( )들 가운데에서 ( )을 골라 그 제단 위에서 바쳤다.”(창세8,20)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 )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 )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 )을 가득 채워라.”(창세9,1)

**- 성 쟁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 향	봉 헌 자
2월 22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신마태오(현규)	신유스티나
	연	신마태오(현규)	윤사비나
	연	신마태오(현규)	조바오로(병국)
	연	권데레사	윤사비나
	연	차예로니모(창섭)	차리디아
	연	서바오로(치훈)	전베로니카(진영)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생	심데레사	서데레사
	생	황말지나(정숙)	김안젤라(영선)
	생	김시몬(원덕)	김안젤라(영선)
	생	김바오로(아룡)	김안젤라(영선)
	생	김마리안나(혜선)	김안젤라(영선)
	생	김안토니오(영백)	이아나스타시아
	생	이마리아(계순)	이아나스타시아
	생	이아가다(윤자)	가족
	생	이아가다(윤자)	익명
	생	이베네타(보람)생일	이야고보/카타리나
	생	송아가다(분학)	조바오로(병국)
	생	황안나(정희)	익명
2월 24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생	김아델라(다솜)축일	송베로니카
2월 25일 수	생	황말지나(정숙)	익명
2월 28일 토	연	이루시아(숙자)	이마태오(영기)
	생	회원들의영육간건강	성령기도회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	256	-	256
헌 금	-	\$2,129	-	\$2,129

< 교무금 > \$930

이영기(1-2) 유혜선(2) 최상철(2) 배짬마(1-2)  
차영화(1-2) 변귀태(2)

< 성소후원금 > -

< Bishop's Appeal >

변귀태(2)

< 감사헌금 > -

~~~~ 오늘 간식은 이인학 시몬/울리엤타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 공 지 사 양 -

◆ 사순절 전례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주일 아침미사 전 7시 20분부터  
 주일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봉헌하고 이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전 7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2차 헌금  
 오늘 :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및 북미주한인사목  
 사제협의회 후원을 위한 헌금

◆ 부활판공성사  
 사순시기 동안 매 미사 30분 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여  
 판공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부활초/꽃봉헌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친교실과 성당입구에서 Rice Bowl을 가져가십시오.  
 사순시기 동안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며 저축하셨다가  
 사순시기 끝나는 날 봉헌해 주십시오.  
 모아진 금액은 교구로 보내져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 사순피정  
 2월 27일(금) 저녁 미사 후 영상 십자가의 길  
 \*\* 이 날은 미사 전 십자가의 길이 없습니다.  
 3월 1일(일) 점심 식사 후 강의  
 - 주제 :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 친교실에서는 바오로딸 도서선교가 있습니다.

◆ 견진대상자 신청  
 4월 26일 견진성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견진대상자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 특강 안내  
 일시 : 2월 26일(목) 저녁 7시 반 미사 후  
 장소 : 샌프란시스코 성마이클 성당  
 주제 : 자랑스런 신앙선조의 천주신앙  
 강사 : 최인각 바오로신부(수원가톨릭대 교수)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2월 단체산행은 없습니다.  
 \* 구역반장회의 : 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사목회의 : 3월 1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 봉사  
 일시 : 2월 26일(목) 오후 4시  
 문의 : 이선희 막달레나 510-566-0582

2월 반모임 안내

| 구역 | 반         | 시간           | 장소        |
|----|-----------|--------------|-----------|
| 1  | 오클랜드      | 2월28일(토)5시   | 명광식니콜라오덕  |
|    | 실버반       | 2월28일(토)2시   | 파운더스룸     |
| 2  | 프리몬트 S/N  | 2월22일(일)6시   | 강시구안드레아덕  |
|    | 유니온       | 2월22일(일)6시   | 최환준베네딕토덕  |
|    | 헤이워드      | 2월25일(수)6시   | 심태규미카엘덕   |
| 3  | 캐스트로밸리E/W | 2월28일(토)6시   | 이종규미카엘덕   |
|    | 알바니 08    | 2월22일(일)6시   | 이영길안드레아덕  |
| 4  | 라스모어      | 2월25일(수)5시   | 김광석베드로덕   |
|    | 월넛크릭      | 2월26일(목)6:30 | 허순구리우렌시오덕 |
|    | 콩코드       | 2월28일(토)7:30 | 김휘안토니오덕   |
|    | 플레즌힐      | 2월28일(토)6시   | 구창희미카엘덕   |

◆ 대건산악회 정기산행 안내  
 일시 : 3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집합장소/시간 : 9시 30분까지 성당 주차장  
 직접 오시는 분 : 10시까지 Redwood Regional Park  
 맨 위 주차장(무료)  
 준비물 : 점심 및 산행 필수품 각자 지참  
 문의 : 510-847-3014

◆ 북가주 25차 ME 첫주말 초대  
 일시 : 2015년 4월 10일 - 4월 12일  
 장소 : Vallombrosa Retreat Center, Menlo Park  
 참가비 : 부부당 \$ 300.00  
 연락처 : 한치용 요셉 415-810-3175  
 한현자 헬레나 925-285-2038

◆ 여성 10차 꾸르실료 주말 봉사자 신청  
 꾸르실료 주말 : 6월 25일(목) ~ 6월 28일(일)  
 신청 : 이창용 레이몬드(간사) 510-688-0157

◆ Brown Bag 봉사활동과 후원요청  
 \* 금년도 Brown Bag 배급 혜택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1년 등록비 \$10을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Brown Bag 식료품 구입과 수송 등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후원자의 Donation을 받고 있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친교실 Brown Bag Desk

◆ 성물방 Sale  
 사순시기 동안 도서/성물을 20% Sale 합니다.(초 제외)

주일학교 소식

- Sunday School 11:00 ~ 12:15
- 영어미사 : 오후 12시 30분